

자연적인 악조건을 지역발전으로 승화시킨 일본 3대 와인산지 ‘이케다정(池田町)’



장성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jangun@jd.re.kr

토카치(十勝)와인의 탄생은 이케다정의 혹한기를 극복하고 재배가 적합한 포도 품종을 찾기 위한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생과로 출하할 수 있는 포도 품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40여종에 달하는 묘목을 도입해 재배를 시도했으며, ‘와인’은 생과로 판매하기 위한 품종 개발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홋카이도(北海道)의 작은 시골마을 이케다정



2011년 와인축제 팸플릿

	(池田町)	(海道)
	8	
		25 가
		.
		‘
(十勝)	3	
		가
		60



포도 전시원

와인의 고장 이케다정의 발전 과정 (十勝)

가

40

가

1), ,

가

1962

가

가

가

가

1950

1960

5



와인 조형물

1964

가

가

1967

1

1964

1) 이케다 지역환경에 적합한 포도 품종의 개발은 이후 3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진행되어 독자품종인 '키요미'를 비롯한 신품종의 개발과 품종 개량으로 이어졌다.

3

가

. 1975

가

가

. 1988

(飯酒)
(町)

(田園)

1972

20

3 가

가



일루미네이션 콘테스트 수상작

가

가

197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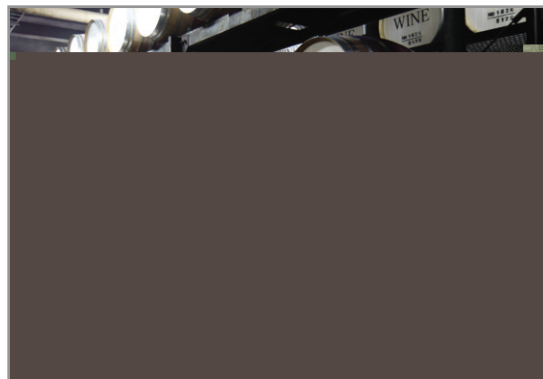
가

(城)



이케다정 와인성 전경

가



토카치 와인 저장고

(城)

이케다정 사례가 주는 교훈
가

가 가 .
,

가 가

1960